

2016년 북한 산업동향

이석기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sklee@kiet.re.kr

I. 머리말

2016년 북한 산업 및 실물부문은 전년의 부정적인 요소가 크게 완화되고, 대북 경제제재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가운데 70일 전투 및 200일 전투에 따른 단기적인 노동력 투입 증가 및 생산활동 증가라는 요인이 작용하여 전년에 비해 소폭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북한 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가뭄요인은 2016년에는 해소되었다. 수년간 지속된 가뭄으로 한국은행 추정치 기준으로 2015년에 수력발전량이 전년 대비 20% 감소하여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2015년 하반기 이후 북한 강수량은 평년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며, 이에 따라 2016년 북한의 수력발전량은 2015년에 비해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는 무연탄의 대중 수출이 소폭 증가하고, 중국으로부터의 기계류 및 원부자재의 수입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적어도 2016년 북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제7차 당 대회, 70일 전투 및 200일 전투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북한 산업 전반의 투자 및 생산활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력이 전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되며, 광업도 석탄광업을 중심으로 소폭 성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조업은 설비와 원부자재의 수입이 전년보다 증가한 가운데 전력 공급이 증가하고, 속도전에 따른 자원과 노동의 투입 확대 등으로 소폭 성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부문도 생산활동이 활발하였으나 당창건기념일을 전후한 대규모 토목사업이 집중된 2015년에 비해서 의미 있는 성장을 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70일 전투나 200일 전투 등 속도전은 대규모 신규 설비의 건설을 통한 생산능력 확충이나 전력, 철강 등 전략적인 품목의 생산목표 달성 등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주로 각 생산단위 생산계획의 조기 수행을 그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즉, 상반기 계획을 70일 전투 기간 중에 조기 완수한다거나 연간계획을 200일 전투 기간 내에 완수한다는 방식이다. 물론 석탄부문과 같이 당초의 연간계획 목표가 상향된 부문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조기 완수 목표에는 생산목표뿐만 아니라 각 공장·기업소가 추진하거나 추진하려고 하던 개보수나 신제품 개발 등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즉, 70일 전투 및 200일 전투의 목표는 어느 정도 개별 공장·기업소의 역량과 자체 계획을 반영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즉, 전면적인 top-down 방식이 어느 정도 지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현재 북한경제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실현 불가능한 야심적인 양적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 김정은의 경제정책 기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목표달성에 대한 성과보도가 크게 늘어났다. 대부분의 주요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포함한 1,600여 개의 기업에서 70일 전투의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선전되었으며, 200일 전투도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고 선전되었다. 황해제철소와 천리마제강소의 성과보도가 반복되는 가운데 금속부문의 핵심 설비인 김책제철소의 생산성과 보도가 재개되었다는 점, 석탄화학공업 부문의 성과보도가 전년에 비해 늘어났다는 점, 경공업 부문에서는 식품가공 부문보다 섬유·의류의 성과보도가 상대적으로 많다든가 하는 것들이 눈에 띄이는데, 이는 성과보도가 어느 정도 실제 성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기존 설비의 개보수와 함께 새로운 제품, 공정, 기술의 도입에 관한 성과보도가 크게 늘어났다. 이는 속도전이라는 특성에도 기인하지만 김정은 정권의 주요 경제정책인 국산화 정책 및 과학기술 중시정책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부문에서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3호기, 동북부지방 수해복구, 평양려명거리, 대규모 물길공사, 각급 보육 및 교육 시설, 체육시설, 일부 새로운 생산설비 건설 등 활발하게 생산활동이 이루어졌지만, 전년 같은 기간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동북부지방의 수해는 북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양면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려명거리 건설이 중단(혹은 지연)되고, 많은 국영기업의 생산활동이 수해복구와 관련된 분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생산계획의 수행이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반면, 수해복구를 위하여 자원이 집중됨에 따라 건설자재 등 수해복구 관련 부문의 수요가 급증하고, 생산활동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동북부지방의 수해가 북한 산업 전반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II. 2016년 북한 산업 및 실물 동향

1. 전력 및 광업

가. 전력

전력부문은 가뭄 해소에 따른 수력발전부문의 개선과 제7차 당 대회에서의 전력부문 강조 등에 따라 화력발전부문 설비 개보수와 연료탄 공급 증가 등으로 발전량이 상당폭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력발전부문의 생산성과 보도가 거의 없었으며, 화력발전부문의 성과보도도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던 2015년과 달리 2016년에는 상반기부터 수력발전부문의 생산성과가 보도되었으며, 7차 당 대회 이후에는 화력발전소의 생산성과 보도가 크게 증가하는 등 전력부문의 생산성과 보도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전력부문은 화력발전부문이 70일 전투 목표를 11% 초과달성하는 등 전체적으로 10% 초과달성하였다고 보도되었으며, 200일 전투도 첫 달 전력생산계획을 20% 초과수행하는 등¹⁾ 수력 및 화력 발전 부문 모두에서 초과달성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수력발전부문은 2015년 하반기 이후 강수량의 증가에 따라 2015년에 비해 발전량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 추정치에 의하면 2015년 수력발전량은 가뭄에 의한 수량 부족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하였는데, 2016년에는 가뭄요인이 해소됨에 따라 2014년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²⁾ 여기에 백두산청년영웅발전소 2, 3호기, 원산군민발전소의 완공 및 가동 등 새로운 수력발전소의 가동도 발전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수력발전 부문에 대한 성과보도가 거의 없었던 2015년과 달리 상반기부터 반복적으로 생산성과가 보도되었다. 특히 12월 16일에는 200일 전투목표가 초과완수되었으며, 매일 평균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50%의 전력을 초과생산하였다고 선전하기도 하였다.³⁾

화력발전부문도 7차 당 대회에서 제시된 5개년 경제개발 전략에서 전력부문이 강조되고, 이의 실현수단으로 발전설비의 개보수 및 효율 증대와 연료탄 공급 증대 등이 추진됨에 따라 전년에 비해 발전량이 다소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2016년에는 북창화력 발전소나 동평양화력발전소 등 주요 화력발전 설비의 개보수와 효율화 등이 성과가 반복적으로

1) 『노동신문』, 2016. 7. 5.

2) 2015년 하반기부터 강수량이 늘어나서 2015년 전체로는 평균 강수량이 예년 수준을 넘어섰다. 2016년에도 평년 수준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 중인데, 5월의 경우 평균 강수량은 148mm로 평년 대비 92%가 증가하였다.

3) 『노동신문』, 2016. 12. 16.

보도되었다. 이는 70일 전투 및 200일 전투 등 속도전 기간 중에 화력발전 설비의 개보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속도전에 따른 석탄 생산 및 화력발전부문에 대한 연료탄 공급 증가도 화력발전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과보도도 크게 증가하였다. 상반기에 진행된 70일 전투부터 화력발전부문의 성과가 집중 보도되었는데, 『노동신문』은 북창화력발전소, 평양화력발전소, 순천화력발전소, 청천강화력발전소 등에서 70일 전투 기간 동안 전력 생산계획을 11% 초과달성하였다고 하며, 특히 순천과 청천강 화력발전소는 각각 1,750만kWh와 1,635만kWh의 전력을 증산하였다고 한다.⁴⁾ 200일 전투 기간 중에도 북창화력발전소, 동평양화력발전소, 순천화력발전소 등 주요 발전소의 생산성과가 반복적으로 보도되었다.

투자 측면에서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와 원산군민발전소가 완공·조업하였으며, 홍주청년3호발전소 등 일부 중소형 발전소도 완공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송·배전망의 현대화와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전년에 이어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국가과학원 에네르기 연구소 등에서 10kW, 100kW 풍력발전기를 자체 제작했다고 하였으며, 태양광전지판의 자체 생산능력도 갖추었다고 주장하였다. 태양광을 전원으로 하는 유람선 건조성과도 보도되었다.

나. 광업

광업 부문은 대북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대중 무연탄 수출이 증가하고, 속도전 등으로 내수용 석탄의 생산도 증가하는 등 전년에 비해 성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탄의 대외 수출이 민수용으로 한정되는 등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2016년 11월 말까지 무연탄의 대중 수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금액기준으로는 4.7%, 물량 기준으로는 200만톤 이상 증가하였으며, 철광석의 수출도 증가하는 등 지하자원에 대한 대북제재에 따른 수출과 광업 부문의 생산 위축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내수용 광업의 경우 7차 당 대회에서 발전부문이 강조됨에 따라 연료탄 증산 노력이 강화되고, 70일 전투 및 200일 전투의 영향 등으로 석탄광업을 중심으로 생산이 소폭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⁵⁾ 이에 따라 구체적인 생산성과 보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노동신문』에 의하면 석탄광업성 전체로 70일 전투 목표를 40% 초과달성하였으며,⁶⁾ 200일 전투 첫 40일

4) 『노동신문』, 2016. 5. 4; 2016. 5. 6.

5) 70일 전투 등 속도전은 그 성격상 노동력과 자원의 조기·집중 투입을 통한 생산활동 증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속도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은 노동력의 투입량이 생산규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광업 및 건설업이다.

6) 『노동신문』, 2016. 5. 6.

동안 전년 같은 기간보다 수십만 톤의 석탄을 증산하였다고 한다.⁷⁾ 연간으로는 계획을 9.8% 초과달성하였으며, 전년보다 200여 만톤의 석탄을 증산하였다고 한다.⁸⁾

철광석을 비롯한 금속광물의 대중 수출이 증가하고, 속도전 등에 의해 생산이 독려됨에 따라 석탄 이외의 광업 부문도 전년에 비해 생산활동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제조업

가. 중화학공업

중화학공업은 전력 및 석탄 공급 증가, 기계류 수입 증가, 일부 대형 설비투자 완료 및 가동, 그리고 70일 및 200일 전투 등의 영향으로 기계(수송기계 포함), 중전기, 화학, 그리고 금속, 건설자재 등 거의 전 부문에서 전년보다 소폭이지만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년에 이어 기계 및 중전기 부문에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70일 전투 및 200일 전투에 따른 전반적인 생산활동 증가와 함께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등 수력발전소 건설, 농기계 및 어선 등 농수산부문에 대한 지원, 그리고 국산 설비 및 자재에 의한 개보수 및 현대화 추진 등 주요 경제정책 기조가 기계공업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공작기계, 수력발전 설비, 수송기계, 농기계 등에서 전반적으로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하여 『노동신문』 등은 70일 전투 기간 중 기계공업 부문은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룡성기계연합기업소, 금성트랙토르연합기업소 등에서 공작기계 생산계획을 60% 초과달성하는 등 수력발전기와 터빈, 공작기계, 자동차, 트랙터, 굴착기, 압축기, 전동기, 감속기, 변압기 등을 계획보다 평균 50%, 최고 100% 초과달성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10월 말까지 200일 전투 공업총 생산계획을 5% 초과달성하였으며, 자동차, 트랙터, 변압기, 발전기, 전선류, 현수애자, 칠감 등 주요 지표의 계획이 완수 또는 초과완수 되었다고 선전하였다. 한편, 기계공업 중에서 전동기, 펌프, 권양기 등을 생산하는 채취기계공업 부문의 성과보도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석탄광업 등 광업 부문의 생산독려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⁹⁾ 또한 5,000톤급 무역화물선, 3척의 태양광 전지유람선, 수십 척의 소형 어선 등 민수용 선박의 건조에 대한 성과보도가 크게 늘어났는데, 이는 2000년 이후 2015년경까지 민수용 선박의 신규 건조에 대한 보도가 거의 없었던 것과 크게 대조를 이룬다. 생산활동의 증가와 함께 주목되는 점은 각급 기계공장에

7) 『노동신문』, 2016. 7. 18.

8) 『중앙방송』, 2016. 12. 19.

9) 채취기계공업국 소속 공장들에서 200일 전투 공업 총생산액 계획을 7% 초과달성하였으며, 전동기, 펌프, 권양기를 비롯한 주요지표별생산계획을 12%, 18%, 14% 초과수행하였다고 한다(『노동신문』, 2016. 12. 19).

서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활동의 증가와 함께 주목되는 점은 각급 기계공장에서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와 청진빠스공장에서 각각 5톤 신형 화물차와 버스를 개발하였으며, 금성트랙도르공장에서는 50마력 신형 트랙터를 개발하였다고 한다. 령남배수리공장에서 5,000톤급 화물선과 태양광전지 유람선을 건조하였으며, 구성공작기계공장에서는 신형 CNC 내면연마반과 외면연마반을 개발·생산하였고,¹⁰⁾ 대안전기공장은 100kW와 10kW 풍력발전기¹¹⁾를 개발·생산하였고 한다. 아울러 감자수확기, 자행식 분무기, 종합발갈이기계, 종합토양관리기계, 소형다기능농기계, 벼종합탈곡기 등 20여 종 70여 대의 농기계들이 개발·제작되었다고 한다.¹²⁾ 아울러 유경김치공장 등 공장 신설이나 평양곡산공장 등의 현대화에 북한산 기계 및 설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북한 기계공업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북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기계류의 대중 수입은 전년에 비해 상당폭 증가하였다. 기계류(HS84)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하였으며, 화물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는 25.3% 증가하였다. 반면, 전자제품은 전년에 비해 9.1% 감소하였다.¹³⁾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의 설비투자 및 개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적어도 2016년에는 '설비의 국산화' 정책이 북한산 기계 및 설비만을 고집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화학공업도 비료와 일부 기초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생산이 다소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70일 전투 기간 중 남흥청년연합기업소와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생산계획이 20% 초과달성된 것으로 보도되는 등 석탄가스화 공정에서의 비료 생산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¹⁴⁾ 2·8비날론연합기업소에서 비날론과 염화비닐, 가성소다 등 기초화학제품의 생산도 증가하였다고 보도되었다.¹⁵⁾ 아크릴칠감 생산공정을 설립한 순천화학연합기업소의 생산성과도 비중 있게 보도되었다. 북한 화학공업의 생산활동이 소폭이지만 증가한 것은 2000년대 중후반 이후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완료되고, 최근 이들 신규 설비투자의 생산안정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의 신규 투자는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 기계제염공정, 순천화학연합기업소의 아크릴칠감공정 건설 정도이다. 한편, 비료, 유·무기화합물, 플라스틱 등 화학제품의 대중 수입이 2016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여 대북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대외무역의 화학 원부자재 공급 기능이 강화되었다. 또한 적어도 아직까지는 자재의

10) 『노동신문』, 2016. 5. 12.

11) 국가과학원에서는 250kW 풍력발전기를 제작하였다고 한다(『노동신문』, 2016. 12. 6).

12) 『노동신문』, 2016. 5. 14.

13) 2015년 같은 기간 중 기계류와 자동차가 각각 18.7%와 6.8% 감소하였으며, 전자제품은 20.8% 감소하였다.

14)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석탄가스화 비료 생산공정과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요소비료 생산공정은 조업 이래 최고의 생산실적을 기록하였다고 보도되었다(『노동신문』, 2016. 4. 18; 2016. 4. 27).

15) 4월 19일 현재 70일 전투 비날론 생산목표를 50% 초과달성하였다고 보도되기도 하였다(『노동신문』, 2016. 4. 21).

국산화 정책이 수입 자재의 감축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속공업도 전년과 달리 어느 정도 생산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말 산소열법용광로의 가동을 시작한 황해제철소와 천리마제강소의 생산성과가 집중적으로 보도된 가운데, 하반기부터 김책제철소의 선철 및 압연강재 생산성과가 보도되는 등 핵심 설비의 가동률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황해제철소는 70일 전투기간 동안 선철 및 압연강재 생산계획을 각각 29%와 11% 초과수행하고, 200일 전투 기간 중에도 계속 최고 생산실적을 달성하였다고 보도되었다.¹⁶⁾ 천리마제강소는 200일 전투목표를 조기 달성하였으며, 산하 보산제철소도 주체철 생산의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보도되었다. 주목할 점은 70일 전투 등이 추진되던 상반기 중에 생산동향이 거의 보도되지 않던 김책제철소의 성과보도가 하반기 이후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6월 선철 생산목표를 완수하였다는 기사를 시작으로 7월 압연강재 생산계획 50% 초과달성, 8월 22일까지 200일 전투의 세 달분 선철, 강철, 압연강재 생산계획을 각각 15%, 2%, 30% 이상 초과달성하였다고 보도되었다.¹⁷⁾ 이들 핵심 제철설비들은 북부지구 수해복구 사업을 위한 금속소재 공급에서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크게 강조되지는 않고 있지만 핵심 설비에 대한 투자도 계속되고 있다. 황해제철소에서 산소열법용광로 현대화 공사와 함께 무연탄 가스발생로와 고온공기연소기술에 의한 압연가열로가 완공되었으며, 중량레루완성직장의 레루수평교정기 설치, 후판압연가열로 고온공기연소기술도입, 선탄공정 확립 공사 등 10여 개의 새로운 공정 건설 및 현대화 공사가 완료되었다.¹⁸⁾ 김책제철소에서는 대형 무연탄알탄 생산기지가 완공되었으며, 천리마제강소에서는 산소분리기 설치와 고온공기연소기술에 의한 내화물 생산기지 건설이 추진되었다.¹⁹⁾ 시멘트를 중심으로 하는 건설자재부문은 발전소 건설 등 계속되는 대형 건설공사와 북부지구 수해복구 사업 등 수요의 증가와 석탄 공급 증가 등으로 순천시멘트, 상원시멘트 등 주요 설비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 경공업

경공업은 전년과 달리 섬유·의류를 중심으로 생산이 소폭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70일 전투기간 동안 경공업 부문 공업 총생산액 계획이 54% 초과수행되었으며, 방직, 편직,

16) 다만, 황해제철소의 산소열법용광로의 생산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되지 않아 황해제철소의 생산 증가가 북한의 전체 철강 생산량을 어느 정도 증가시키지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17) 『노동신문』, 2016. 8. 24. 특히 이 기사에서 압연강재 생산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6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최근 수년간 가장 높은 실적이라고 선견하였다. 동 기사는 이러한 압연강재 생산 증가의 원인으로 오랫동안 가동되지 못하였던 냉간압연계통의 설비의 재가동을 들었다.

18) 『노동신문』, 2016. 5. 25.

19) 『노동신문』, 2016. 5. 3.

신발공업부문에서 전년 동기보다 실적이 60% 증가하였으며, 잠업비단공업국의 생산은 두 배가 되었다고 보도되었다. 200일 전투 첫 달인 6월에는 일반천, 뜨개옷, 양말 등을 중심으로 경공업 총생산액 계획이 20% 초과 달성되었다고 한다. 식품가공부문은 성과보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6월에 평양곡산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등을 중심으로 식료일용공업성 기업들이 계획을 30% 초과달성하였다고 보도되었으며, 주로 각 지방의 식품공장 성과가 보도되었다. 생산과는 달리 투자에 관한 보도는 식품가공부문에 집중되었다. 금컵체육인식품공장과 평양곡산공장의 설비 확충 및 현대화가 반복적으로 보도되었으며, 류경김치공장도 비중 있게 보도되었다. 한편, 평양 민들레학습공장이 신설되었다.

2016년 11월까지 대중 섬유류의 수입은 전년 동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나 의류의 수출은 감소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의류의 수입은 크게 증가하였다. 통상 북한의 대중 섬유류 수입은 대중 임가공 수출과 연계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2016년에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의류 임가공 수출이 줄어드는 가운데, 내수용 의류 생산을 위한 섬유류의 대중 수입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7차 당 대회나 북부지구 수해복구 지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의류 수입의 증가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2016년의 대외무역은 의류부문에서도 국내 생산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 건설 및 국토관리

건설부문은 전년에 이어 활발하게 생산활동이 이루어졌다. 70일 전투의 핵심 과제인 백두산 영웅청년3호발전소가 완공되었으며, 원산군민발전소 및 홍주청년3호 발전소 등이 완공되었다. 지난해의 미래과학자거리와 유사한 성격의 려명거리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함흥과 학자살림집 건설 1단계가 완공되었다. 또한 북부지역 수해복구 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회령시, 무산군, 연사군 등 수해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3,000여 동 1만 9,000여 세대의 5층, 3층, 단층 주택이 건설되었다.

함흥과 혜산 육아원, 평성 초·중등학교 등 20여 개의 육아원·애육원과 초·중등학교가 건설되고, 많은 교실이 개보수되는 등 교육·보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었다. 중앙동물원 2단계 개선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평양시의 100여 개 체육시설을 비롯한 각지의 650개 체육시설이 개보수 및 현대화되었다.

황해남도 물길공사 1단계와 흥건도 간석지 1단계 공사가 완공되었으며, 청천강-평남 관개

자연흐름식 수로공사가 새로 추진되고, 미루벌물길공사, 능금도, 용매도 간석지 공사 등이 지속되는 등 대규모 토목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아울러 600여 km의 강하천을 정리하고, 200여 정보의 호안림을 조성하였으며, 10여 만 정보의 산에 수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백수십km의 도로를 개보수하며, 수십 개의 다리를 건설하였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리고 70일 전투 및 200일 전투 추진과정에서의 설비 개보수 및 현대화 등 기업 투자를 수반한 건설공사도 상반기에는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 당창건기념일 이벤트를 위하여 대규모 건설공사가 다수 진행되었기 때문에 전년 동기간에 비해서 건설활동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III. 평가 및 전망

2016년 북한의 산업 및 실물부문은 전년의 후퇴를 초래한 주요 요인인 기상조건과 대외무역이 크게 개선된 가운데, 노동력 및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70일 전투 및 200일 전투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성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전에 비해 크게 강화된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경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11월까지 대중 수출이 2.8%, 수입이 8.6% 증가하는 등 결과적으로 북한경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핵심 타겟이었던 무연탄의 대중 수출은 금액기준으로 4.7% 증가하였으며, 물량으로는 200만톤 이상 증가하였다. 더욱이 대중 수입이 전년 동기에 비해 8.6% 증가한 가운데, 기계류, 수송기계, 섬유류,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등 북한 산업의 투자 및 생산을 위한 거의 모든 부문의 수입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따라서 전년과는 달리 2016년에는 대외무역이 북한 산업 및 실물부문의 생산 및 투자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대외무역의 감소, 특히 수입의 감소와 함께 지난해 전력 공급의 감소가 북한 제조업 후퇴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2016년에는 전력 공급량도 상당폭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하반기 이후 강수량이 평년 수준을 웃돌아 수력발전소의 가동률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7차 당 대회의 전력부문 강조에 따른 화력발전소의 개보수 및 효율화, 연료탄 공급의 증가 등으로 화력발전량도 어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전년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해소 내지 개선된 가운데, 단기적으로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속도전인 70일 전투 및 200일 전투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산업 생산활동이 다소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외무역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은 가운데, 단기적으로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속도전인 70일 전투 및 200일 전투의 영향으로 2016년 상반기에는 전반적인 산업 생산활동이 비록 일시적이지만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신문』은 70일 전투의 계획이 44% 초과달성되고, 기간 중 공업 생산액이 전년에 비해 60% 성장하였으며, 200일 전투계획이 19% 초과달성되는 등 전반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하였다. 『노동신문』의 신뢰성이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노동력과 자원을 단기간에 집중 투입하는 속도전이 해당 기간 내에 어느 정도 증산효과를 거두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할 때, 2016년 북한산업 및 실물부문은 전반적으로 생산활동이 다소 증가하였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산업 내부에서는 전력, 기계, 석탄광업, 화학, 섬유·의류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성과가 컸을 것으로 추정되며, 금속공업도 전년에 비해 다소 성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난해 가뭄으로 발전량이 감소하였던 수력발전부문에서 적지 않은 증산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북한의 산업 및 실물부문의 환경은 2016년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북한의 석탄 수출을 4억 87만달러 혹은 750만톤으로 제약하는 UN 대북 경제제재 2321호에 의해 석탄을 비롯한 수출광업 전반의 생산 및 투자가 상당한 타격을 입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수용을 제외한 석탄의 수출을 금지한 2270호에 비해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액과 물량 양 측면에서 동시에 규제하고 있는 2321호는 2270호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석탄은 부피가 커서 선박이나 기차 등을 이용해서 수송할 수밖에 없어 제재를 근본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UN 대북 경제제재 2270호가 중국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의지가 없으면 성과를 보기 어려운 제재였다면, 2321호는 중국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회피 노력 없이는 피해 가기 어려운 제재인 것이다. 이에 따라 석탄 등 수출광업의 생산 및 투자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채굴장비산업 등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석탄의 대중 수출 감소는 에너지 부문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규모가 크지는 않겠지만 수출이 막힌 일부 석탄이 화력발전소 등에 공급되거나 민수용 시장에 공급될 가능성이 있지만, 가격이나 시장 수요의 한계 등으로 수출광업의 내수로의 전환은 단기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수출 감소의 직접적인 영향이 수출광업 및 일부 관련 산업에 국한되는데 반해, 수출 감소에 따른 기계 및 설비, 그리고 중간재의 수입 감소는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수출이 절반 이상 감소되고, 감소된 외화 수입이 대중 인력송출 증가 등으로 상쇄되지

않을 경우 기계나 부품, 원부자재 수입 감소 등으로 북한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건은 임가공 의류나 수산물 등 수출품목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둘 것이냐 하는 점이다. 특히 제조업 제품의 수출이 증가한다면 북한경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하여 무연탄의 대중 수출 감소를 보상하기 위하여 북중 간에 경제제재와 무관한 부문에서의 경제협력이 강화된다면 경제제재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2016년 300일 가까이 지속된 속도전의 후유증으로 2017년 상반기 산업 전반의 속도 조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속도전은 미래에 사용할 생산요소를 당겨서 생산과정에 투입함으로써 단기적인 성과를 도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된 속도전 이후에는 조정과정이 필수적이다. 국가차원에서 속도전을 지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상당폭 감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대외 경제환경의 악화와 장기간의 속도전에 따른 후유증 등으로 2016년에 비해 2017년 북한 산업의 생산 및 투자활동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북한경제가 소폭이지만 성장하는 추세를 지속하는 주요 배경의 하나인 시장화가 2017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는 북한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과학기술 중시정책이나 국산화 정책, 대규모 주택 건설을 통한 경기 확장정책 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당장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기계나 설비, 그리고 원부자재의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되지 않는다면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산업 및 실물부문은 단기적으로는 최근의 개선 추세를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

참고문헌

- 『노동신문』, 「수지마대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2016. 4. 18
- 『노동신문』, 「설비마다 만부하를 걸고 비날론생산을 다그친다」, 2016. 4. 21
- 『노동신문』, 「전투목표 점령, 노소비료생산 최고수준 돌파」, 2016. 4. 27.
- 『노동신문』, 「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제낀 승리의 개가」, 2016. 5. 3.
- 『노동신문』, 「충정의 70일전투를 빛나게 결속한 기세로 계속혁신, 계속전진」, 2016. 5. 4.
- 『노동신문』, 「전국적인 충정의 70일 전투계획 144%로 넘쳐 수행」, 2016. 5. 6,
- 『노동신문』, 「령남배수리공장에서 5,000t급 무역짐배 건조」, 「5t급 화물 자동차 제작」, 「새형의 버스를 만들었다」, 2016. 5. 12.
- 『노동신문』,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 참가자들」, 「농기계부문에서 12종의 농기계를 새로 연구개발」, 「자연에너지개발리용에서 이룩된 자랑스런 성과」, 2016. 5. 14.
- 『노동신문』, 「자력자강의 위대한 혁명정신이 안아온 자립적야금공업발전의 튼튼한 토대」, 2016. 5. 25.
- 『노동신문』, 「만리마시대의 새 승리를 향한 연속공격전의 거세찬 불길」, 2016. 7. 5.
- 『노동신문』, 「각지 탄광에서 계획보다 수십만t의 석탄을 증산」, 2016. 7. 18.
- 『노동신문』, 「선철, 강철, 압연강재생산에서 일대 혁신 창조」, 2016. 8. 24.
- 『노동신문』,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200일 전투목표 빛나게 초과완수」, 2016. 12. 6.
- 『노동신문』, 「200일 전투목표 빛나게 초과 완수」, 2016. 12. 16.
- 『노동신문』, 「200일 전투가 승리적으로 결속된 데 대하여」, 2016. 12. 19.
- 『중앙방송』, 2016. 12. 19.